中단체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

공산당 관변단체 미 침략성 강조
미 홍콩·신장문제 부각에 맞대응
한국 외교부 "남침은 공인된 역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전쟁(6·25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하며 미국 제국주의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자 중국 또한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로 미군이 참전한 국제 전쟁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관변단체인 중국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미국의 대외 침략 전쟁으로 심각한 인도주의 재난 초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산하 기구인 중국인권위는 그동안 미국이 홍콩이나 신장 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미국 인권 침해' 시리즈를 발표하며 인종 갈등, 원주민 탄압 등을 비난해온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인도주의를 빌미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240여 년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20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01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0% 정도가 미국이 관여했다면서 "미국의 다수 침략 전쟁은 일방적이며 심지어 동맹국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권위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주요 침략전쟁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등을 꼽았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1950년 초에 발생한 전쟁으로 민간인 300만 명이 숨지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이나 중국군의 참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인권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도 보도하면서 미국의 침략 역사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부각하자 중국 또한 관변 단체를 동원해 미국이 주도한 전쟁 사례를 꺼내 들어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와 83호, 84호 등에서와 같이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당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에 대한 파괴로 보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LG·SK 배터리 분쟁 타결 조지아 정·관계 총동원 바이든도 협상 직접 챙겨"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타결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정관계 인사가 총동원돼 급박하게 움직였다고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의 이번 분쟁이 타결되지 못하면 26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SK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잃을까 우려한 조지아주 정부, 의회 관계자들이 발 벗고 뛰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특히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초선 의원인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역할이 돋보였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정치인 대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LG-SK 분쟁과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11일)을 약 2주 앞둔 지난 2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SK 측 임원을 3시간가량 면담하고 분쟁 합의를 촉구했다. 면담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과 압박이 더 필요하겠지만 양사를 합의에 이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오소프 의원의 설득으로 4월 3~4일 주말 새 LG와 SK의 협상이 재개됐고, 그는 5일 LG 측 임원과도 화상 회의를 열어 재차 중재를 시도했다.

이렇게 진행된 LG와 SK의 '마라톤협상'은 시한이었던 9일을 넘겨 10일까지 계속돼 합의를 위한 길을 트게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오소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양사가 합의에 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윈저성 앞 필립공 추모 행렬 11일(현지시간) 영국인들이 사흘 전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에든버러 공작)을 추모하기 위해 런던 인근 윈저성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9일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필립공의 장례식은 오는 17일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왕실장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거리에서 11일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경 시신 돌려주는 대가로 돈 요구"

바고에서 하루 동안 80여명 학살
시신 탈취·장기 밀매 의혹까지 나와

미얀마 군경의 발포와 폭력에 희생된 시민 수가 누적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지에서는 군경이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8일 밤부터 9일까지 양곤 인근 바고 지역에서 군경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게 실탄은 물론 박격포 등 중화기를 사용해 8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목격자들은 당시 군경이 시신과 부상자들을 함께 쌓아놓다시피 하더니 어디론가 옮기고 핏자국만 흥건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치범지원연합은 "테러리스트들(군경)이 바고에서 숨진 영웅들의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12만 짯(9만6000원)씩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이 자신들이 죽인 시민들의 시신을 가지고 돈을 번다. 얼마나 잔인한가", "돈을 내지 못해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바고 학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울부짖는 사진을 퍼 나르며 군경의 만행을 알리는 한편 시신 반환에 돈까지 요구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중국 선박 떼 남중국해 정박에 미·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재개

2주간 미군 700명·필리핀 1천명 참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중국 선박들이 무더기로 정박하면서 국제적 긴장이 형성된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해 취소했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12일부터 2주 동안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진행한다고 필리핀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군사 훈련 및 중국 선박들의 남중국해 정박을 비롯해 최근 지역 안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실시된다. 통상 양국에서 7600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올해는 미군 700명, 필리핀군 1000여명이 참가한다고 시릴리토 소베자나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밝혔다. 그는 "육체적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에는 지난해말부터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정박중이다. 필리핀은 암초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즉각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선박들에 중국 민병대가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윤동주 고향' 명동촌 관광지 개발 확대

민속마을·숙박시설 등 조성 속도

중국 지방당국이 윤동주 시인의 고향마을 명동촌에 99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룽징 당국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 등에 따르면 명동촌에서는 최근 '명품 민속마을' 착공식이 열렸다.

룽징 당국은 윤동주에 대해 '중국 조선족 저명 시인'이라면서, 윤동주 관련 문화관광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등을 이용해 중국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장성 닝보 소재 기업 3곳이 총 5600만 위안(약 9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우선 6000㎡ 면적에 총 99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 15채를 건설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숙박시설은 이미 개조를 마쳤고, 오는 10월 국경절 연휴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